

“동학농민혁명 계승, 국가가 주도해야”

전북연구원, 기념재단의 기능·조직 확대 필요 강조 유적의 기념물 지정·브랜드 전략·조사연구사업 추진

전북연구원(원장 김성기)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에 처음으로 개최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향후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길 박사는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1.0)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현재에 실천하는 국가 주도의 동학농민혁명 '계승' 사업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국가 주도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사업방향과 과제로 모두 여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200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한 번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이 시급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

립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념사업을 연계하면서 계승사업으로 이끌 구심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조사·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독립적 조직과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전수조사하고, 각 유적을 대상으로 시급성, 원형보존성, 역사적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300여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중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은 5개소에 불과하며, 특히 국가기념일 제정 최종 후보지로 꼽힌 4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황토현전승일, 전주화약일) 중에서 3개 추천일(무장기포일, 백산대회일, 전주화약일)과 관련된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장 박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장 박사는 기념·계승사업이 특정 장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 집중하면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에 잠잠해진 지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으므로, 현대적 계승사업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 박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기화된 상(像), 특히 가슴 뜨거운 분노와 자긍심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계승사업을 위한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브랜드 정체성으로서 '한국민족주의 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점목 선인장 보세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전북 완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직원들이 ‘비모란’과 ‘삼각주’를 붙여 만든 ‘점목 선인장’을 살펴보고 있다. ‘점목 선인장’은 물(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인 ‘부부의 날’과 잘 어울리는 식물이기도 하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전북관광산업 활성화 앞장

숙박시설과 상생업무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 이전한 6개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은 20일 LX 글로벌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전북지역의 대표적 숙박시설 8곳 및 강원동부 산불피해지역 5곳 등 13곳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업무 협약은 6개 기관 종사자(1만7002명)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휴가 사용 지원과 동시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지역을 대표하는 숙박시설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기관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예약사이트를 6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도내 체험 및 놀이시설 입장권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검토하여 지역을 방문한 직원 가족들이 다양한 체험과 관광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쉽게 전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성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함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전기관이 기획하는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상생 협약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도 차원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내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

전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도시 순회 투자설명회 개최

전북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국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는 오는 고양시 킨텍스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4개 주요 권역별 주요도시(서울 2, 경기 2, 대구 1, 광주 1)에서 6차례 개최한다.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순회 투자설명회는 식품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분양을 제고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했다.

1차 투자설명회(5.22, 고양시 킨텍스)는 중부권(대전·충청·강원) 식품기업 대상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다. 또한, 숙명여대 노은정 교수의 '유통업계 HOT' 이슈와 식품업계 시사점' 특강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

자와의 질의·답변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지원시설이 본격 가동되고, 지난 3월 11일부터 토지분양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전환(LH 시행) 등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분양기업이 75개사로 증가하는 등 식품기업들의 관심 및 잠재투자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5월 현재 식품기업 30개 기업이 착공, 그 중 27개 기업은 준공하여 생산기동을 시작하고, 일부업체는 활발한 제품생산 및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풀무원이 수출용 프리미엄 김치공장 준공(2019.5.24)을 마치고 본격 제품생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하림·매일식품 등 선도기업이 금년 중 공장 착공을 함으로써 상징적 의미와 기업들의 상생협력·시너지 등 볼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임대형 식품벤처센터에서 식품창업 열정과 아이디어로 무장된 37개 업체가 입주하여 왕성한 제품 제작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년식품창업Lab사업은 식품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25개팀이 수료하여 그 중 14개팀이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24개팀을 지원·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17(5개팀)가 운영 중이다.

도 조호일 과장은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플랫폼 비즈니스 지원 기능과 식품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산실(産室)로서의 역할을 알리고,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의 교환 및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식품 R&D 지원, 수출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상호작용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내일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축구 정책보고회 개최

대한축구협회(회장 김대은)가 주관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축구 정책보고회'가 내일 오후 3시부터 전북도청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구팬 및 관계자, 일선 지도자, 선수, 학부모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례 걸쳐 한국축구 정책제안 간담회의(1차 대표팀 강화, 2차 유소년 육성, 3차 제도 개선)를 가진 바 있

으며,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김관곤 기술위원장), 유소년 육성 시스템 강화(미하일 밀러 기술위원장), 제도개선 및 행정 강화(김중운 대회운영실장)에 대한 정책 보고 발표 후 추진된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책 이행 계획에 대한 발표가 한준희 해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 중기 제품 우수성 호주·뉴질랜드에 '각인'

오세아니아 무역사절단, 총 60건 910만5000달러 상당계약 성과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오세아니아 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 오세아니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60건에 910만5000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주)다인 등 9개 수출기업이 참여했으며 첫 번째 방문지인 호주 시드니에서 개별 방문 상담회를 시작으로 두 번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합동상담 활동을 펼치면서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

호주 시드니 상담회에서는 참가업체들이 현지 바이어사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으며, 뉴질랜드 상담회에서도 참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알찬 현지 상담활동을 통하여 우리도 제품의 우수성을 호주, 뉴질랜드 시장에 각인시켰다.

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41만 달러이상의 수출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트라 현지무역관의 협조를 통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사전시장조사를 거쳐 시장개척단을

구성했으며, 도에서는 파견 기업의 원활한 마케팅활동을 위해 항공료 50%,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상담주선용역비, 통역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도 관계자는 올 9월에는 UAE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하는 무역사절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일 있게 준비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역사절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은 전북도 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trade.jobuk.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